

지역 소식통

유기상 고창군수

공음면 찾아 민원 해결

유기상 고창군수가 28일 공음면을 찾아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로포장, 수로관 확장, 석교천 준설, 급수공사 등 지역의 소소한 현안 사항이지만 귀 기울여 면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공음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손 맛까지 봉사활동과 태국·베트남에서 즐겨 먹던 간식을 준비해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과 나누며 문화 적응기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삶에 따듯하고 중요하게 하는 마음의 양식이다"며 "이주여성의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백산면 협의회 개최

클린부안 챌린지 활성화

부안군 백산면은 28일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위 운동은 '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친절의 마음으로 화합하며, 질서의 문화로 신뢰를 조성하고, 청결의 의지로 품격을 높여가는 민관 협력의 범군민운동을 말한다.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협의회는 백산면 이장협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등 각 사회단체장 20명이 참석했으며, 현재 백산면에서 추진 중인 클린부안 챌린지 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논했다.

클린부안 챌린지 운동은 공공장소나 자연경관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전·후 비교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인증하는 대국민 운동이며, 백산면은 향후 관련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내 학교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과 연계해 환경정화 범위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환경정화 운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용성 백산면장은 "군민의식 개선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청 직원 코로나 확진

## 서울 확진자 접촉... 동선 겹치는 직원 등 전원 음성

### 정읍시, 긴급대책회의... 방역소독·후속조치 만전

정읍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27일 밤 11시 정읍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비상 소집 회의'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엔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정읍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50대 여성이다.

앞서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성동구 30대 여성의 접촉자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 생활과 아주 밀

접하고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에서의 확진은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긴장 상황을 유지하고 더욱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등 초본과 인감증명 발급 등 간단한 민원 업무는 인근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문의·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여러 방법을 통해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더 이상의 확산이 없

도록 방역소독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확진자를 군산의료원에 즉시 이송조치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와 근무지인 정읍시청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확진자의 동선인 시청 종합민원실과 사회복지관, 농협, 2층 의사실, 부의장실, 운영위원장실, 의회사무국, 평통사무실, 건설과를 포함해 시청 2관 지역경제과와 첨단산업과에 대해서는 28일 오전 10시까지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

또, 즉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직원 8명과 교인 1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마치고, 검사의뢰를 통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의 교인에 대해서도 역학조사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휴대폰 위치추적과 카드사용 내역 조회, CCTV 분석 등을 통한 역학조사 후 추가 접촉자를 파악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시 직원이 확진자로 확인되어 시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자제를 보다 단단히 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필수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실천해주시고, 수도권을 비롯한 외부 방문객 접촉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27일 밤 11시 정읍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비상 소집 회의'를 열었다.

## 정읍시, 민선 7기 공약조정 주민배심원 2차 회의

정읍시는 28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와 주민배심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배심원단 2차 회의를 열었다.

시는 그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성별과 나이, 지역을 고려 무작위로 추출해 참여희망자를 모집했다. 2차 전화 면접을 통해 40명을 선정 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한 38명을 주민배심

원단으로 최종 구성했다.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주민배심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공약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의 공약 추진상황 총괄 보고 후(총 공약사업 82개, 진도율 54%), 조정안건으로 올라온 20개 공약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주민배심원단은 5개의 분임으로 나뉘어 각 분임별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나온 분임 촉진자의 진행

으로 배정된 조정안건 4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 앞서 조정 공약사업 담당 팀장과 담당자는 회의에 참석해 배심원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공약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회의의 도왔다. 이후 분임별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과 소감을 나누는 자유 토의 시간을 갖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다음 달 9일 예정인 3차 회의에서는 조정 공약사업들에 대한 최종 심의를 거쳐 공약사업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 '탄력'

고창군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8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최근 제27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고창읍사무소 단일 신축→가족센터·돌봄센터 포함 생활

SOC복합화 시설)' 가결됐다.

군은 현재 고창읍사무소 위치에 추가부지를 확보했다.

국비 15억5,000만원과 도비 3억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172억원으로 6,340㎡ 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500㎡ 규모로 지어진다.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주차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인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재입새 있는 설계용역·디자인,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통해 고창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가을을 맞아 관내 주요 화단에 국화꽃 약 8000본을 식재해 가을 분위기를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했다.

## 고창군 곳곳 형형색색 국화꽃 물들다

### 회전교차로 등 8000본 식재

고창군이 가을을 맞아 관내 주요 화단에 국화꽃 약 8,000본을 식재해 가을 분위기를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했다.

주요 시가지인 군청 앞 회전교차로, 터미널~고창중 가로화단, 고창IC, 고창읍성 앞 화북분 등에 가을의 정취가 물씬 나는 국화꽃을 심었다.

또 군청 현관과 청사 곳곳에 국화를

전시해 관광객과 군민이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과 관광객들이 가을 국화와 함께 재충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왕래가 잦은 곳에 계절별 특색있는 화단과 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고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미생물 산업 메카 '우뚝'

### 신정동에 미생물센터 준공

#### 안전성 평가·산업화 지원

정읍시 신정동 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재)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복합 미생물 안전성 평가를 위한 분석 장비를 갖추고 28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전북대, 기업체 등 농·생명 산업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 미생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미생물 제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생물센터는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분석 장비 구축 예산으로 국비 10억, 지방비 10억을 확보해 기계크로마토그래피 등 23종의 복합 미생물 안전성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미생물센터는 국내 기업 미생물 제품의 안전성 평가와 산업화

를 지원하고, 미생물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며 대한민국 미생물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 국내 유일의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 시험분석·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원료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2020년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사업 주요 성과보고회도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전국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제품 생산 등 25개 기업체 45개 분야 지원 건에 대한 성과를 보고했다. 또, 한국형 그린 뉴딜정책에 발맞춰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진섭 시장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아시아 스마트농·생명 밸리 조성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생물 산업에 관련된 많은 기업을 우리 정읍으로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해리농업협동조합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